

수능 영역별 학습전략 발표

전북교육청,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목표대학 달라져”

수능 100일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영역별 학습전략을 발표했다. 8월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전략적인 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점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변화하는 것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각 영역별 전략을 살펴본다.

▲국어영역
국어 영역은 올해 수능에서 수준별 수능이 아닌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기존의 A/B영역에서 각각 출제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독서와 문학을 좀 더 많은 지문과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좋다. 점수가 나오지 않는 영역이 자주 바뀌고 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담은 있겠지만 국어의 이론과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EBS 수능연계교재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궁극한 점이 나오면 바로 자료를 찾아 그때그때 정리해야 한다. 특히 문법 관련 개념 및 원리만큼은 꼼꼼하게 정리해서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하며, 고전문학의 기본적인 내용도 사례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좋다.

▲수학영역
수학 영역은 기존의 수준별(A/B)

수능이 폐지되고, 가나형으로 구분되어 출제된다. 교육과정의 바뀔에 따라 시험 영역에도 변화가 있어서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다소 시간이 걸려도 고민해 보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BS 교재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른 교재 또는 문제들을 병행하여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 영역 시험 시간에 맞추어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고, 단순하게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영어영역
201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은 쉽게 출제하겠다는 평가원의 출제의 도와는 다르게 다소 어려웠다.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일부 고난도 문항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것과 EBS 간접연계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형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맞춤형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어휘력과 문장 구조 파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주 나오는 어휘를 정리하여 외우고, 어려운 어휘

나 새로운 어휘는 문맥을 통해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사고력을 요하는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사
한국사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만약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평가는 절대 평가를 도입해 원점수 40점 이상 1등급, 이하 5점당 1등급씩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시험의 난이도도 대폭 낮추어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에서는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29개 대학이며, 55개 대학은 응시 여부만 확인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반영하는 경우가 80개 대학으로 가장 많다. 최저학력기준과 가산점 비중이 높지 않을 때 문에 한국사의 영향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위권 학생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불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도록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사회탐구영역
사회탐구 영역은 한국사가 제외된 9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예년과 비슷하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사지 순으로 수험생의 선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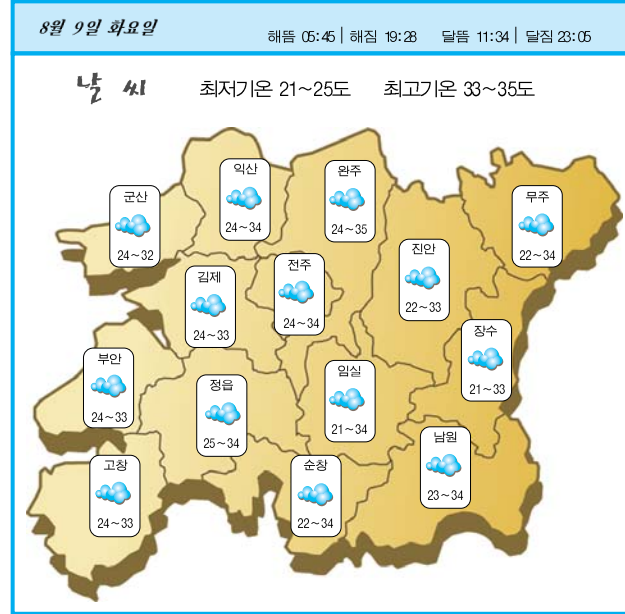
EBS 교재에서 다른 개념 및 자료를 직접 연계한 문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EBS교재를 중심으로 개념 학습을 했다면 일부 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름 방학 동안에 부족한 개념, 원리 학습을 마무리하고,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는 자료 분석형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과학탐구영역
과학탐구에서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보면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과 자료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주로 출제됐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자료 해석이 어려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 개념을 학습할 때, 포나 그래프 등의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탐구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탐구영역은 가장 자신이 있는 과목 중, 선택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올해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수시전형에서는 탐구영역을 2개 과목 평균성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탐구영역을 1개 과목 등급으로 지정한 대학도 있기 때문에 2개 과목이 아닌, 1개 과목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고민형기자



전북 도내 고교, 내년도 입학정원 급감

저출산 등 영향 전년 대비 2,405명 감소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도내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급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17학년도 고등학교 학급 수 및 학생 수 배정현황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학생 수는 2만1,699명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05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계고가 1962명, 특성화고 정원이 443명 줄어든다. 학생 수가 감소하다보니 학급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도내 고등학교 전체 학급 수는 전년 대비 14개 줄어든 789개 학급이 됐다.

14개 학급 감축 내용은 학급감축기준에 해당된 9개 학급과 학과개편 등으로 학교에서 학급감축을 신청한 5개 학급이다. 전북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완주군 고교 입학정원이 남원과 김제 등 일부 시 지역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고교 입학 정원을 보면 ▲전주 8,457명, ▲군산 2,869명, ▲익산 3,737명, ▲정읍 1,359명, ▲완주 1,099명, ▲남원 1,050명, ▲김제 976명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전문 문화예술인 맛보기식 식전공연 없앤다

김승수 시장, “문화지수 1위 도시답게 지역 문화예술인 본 행사 무대 보장” 주문

전주시가 문화지수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행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식전공연을 없애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우 차원에서 식전이 아닌, 본 행사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문화예술인의 식전공연 없애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이날 “행사 준비로 어수

선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식전공연 무대에 오르는 문화예술인들의 실제 마음은 매우 자존심 상하고 불쾌했을 것”이라며 “문화지수 1위 도시답게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는 자세는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모든 행사에서 동호인 중심의 식전공연을 올리고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은 본 행사에 포함시키거나 정식공연으로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품격 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로 했다. 또한 전주지역의 모든 기관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식전공연이 아닌 본 행사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활동 지원, 복지 등을 주 골자로 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예술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가 주관하고 있는 행

사들의 식전공연은 각종 동호회에 무대 경험의 기회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본 행사 또는 정식공연 무대에 오르고 있다. 김 시장은 “전주는 예술에 대한 DNA가 매우 높은 도시로, 문화특별시로 가는 핵심인 예술인에 대해 예우를 갖추는 것은 문화영토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전주 뿐 아니라, 전북, 국가사업 모든 행사에 확산시켜겠다는 자세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원광대 대학원 LED과정 인력양성사업단

캠보디아 왕립농업대 재학생 초청 기술연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학원 LED과정 인력양성사업단은 캠보디아 왕립농업대학 재학생 초청 LED조명 기술연수를 2개월에 걸쳐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과대학 박대희 교수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공학과 취업연계 LED과정인 LED조명과 농생명 응용분야 기술연수를 위해 캠보디아 왕립농업대학에서 학생 2명이 파견돼 이뤄졌으며,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8주 동안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연수를 위해 원광대를 찾은 민 카

카다(21), 쉐 패리(22) 씨는 LED 조명 이론 교육과 실습 실습 교육을 비롯해 산업체 견학과 LED-HT 분야 국제세미나 및 기술교류회에 참석해 미얀마 조명 산업과 LED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김제 하리온 그린랩 식물공장에서 2주 동안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 기회를 가졌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는 원광대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과 국제 세미나 참석 등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민형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